



전북산 복분자 작황부진에 소매價 뛴다

가뭄·냉해로 생산량 줄어 kg당 9000원…농협, 수매가 올려도 물량 확보 어려워

초여름 웰빙과 실인 복분자 수확이 전북 서남권에서 한창이나 가뭄과 냉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매가가 최대 30%까지 올랐다. 농협은 수매가를 전년보다 1000원 이상 높였지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분자는 자양강장, 피로회복,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어 생과자, 술, 즙, 식품으로 소비된다.

복분자 수확은 지난 주말 정점, 고창, 순창 등 서남권에서 시작돼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0%가량 늘어 2910㏊에서 1만

7000t을 팔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확량은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농가들은 겨울 강추위로 나무가 일어 죽고 4~5월 극심한 가뭄으로 과즙이 부족하고 열매가 작다고 입을 모았다.

정읍시 북면 승부리 하석호(60)씨는 “봄에 비가 안 와서 수확량이 20% 정도 줄었다. 그나마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해서 이 정도”라면서 마을주민 상당수가 ‘지난해의 절반도 못 건질 힘편이라고 푸념한다’고 전했다.

수성동 야산에서 5년째 복분자를

키우는 왕남수(67)씨는 “물을 자주 뿌려 평년작을 거뒀지만, 물이 부족 했던 농가는 수확량이 줄어 소매가격을 kg당 1000원씩 올려 받는다”고 말했다. 물을 귀하고 추운 산간지역은 피해가 커 많게는 절반까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짝 마른 나무 끝에 생과가 드문드문 달렸고 손톱만 해야 할 열매는 절반 크기로 되지 않는다.

최상급 생과 1kg의 소매가는 작년 7000~9000원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2000원 넘게 올라 9000원 이상에 팔리지만 그나마 구하기 쉽지 않다.

가습기를 머금지 못해 작황이 형편 없고 알맹이도 작고 푸석푸석하다”며 “지난해에 마늘에서 1000t 정도를 뺐는데 올해는 500t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확량이 줄면서 산지가격이 크게 오른 채 거래되고 농협들은 수매가를 20~30%까지 높여 생과를 확보하고 있다.

순창군 쌩치면 금정마을 변병섭(69)씨는 “4월 말~6월 초 비가 아예 오지 않아 나무가 고사하거나 열매

절달아 농협 수매가도 최상급의 경우 지난해 5500~6000원에서 6500~6900까지 올랐으나 물량 확보가 어렵다.

정읍농협 송윤길 경제사업본부장은 “올해 복분자는 습기가 머금지 못해 열매가 작고 과즙이 적으면서 당도가 높은 게 특징으로 봄 가뭄의 영향 때문이다”며 “지난해 수매가는 6000원인데 올해 800원을 올렸다”고 말했다.

순창지역 복분자 수매 담당자는 “순창은 가뭄이 심하고 지대가 높아 작황이 부진하다. 특히 주산지인 쌩치, 복흥의 경우 예년의 절반이 될지 몰라 생과를 구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전북 치매관리센터 오늘 전주에 개소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북도 치매관리센터’가 28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해성빌딩 2층에 문을 연다.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마음 사랑병원이 위탁 관리하는 이 치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익산 함열에 33만㎡ 농공단지 조성

전북 도내에서는 마지막으로 익산시 함열읍에 농공단지가 조성된다.

함열 농공단지는 33만㎡ 부지에 국비 30억 원 등 총 300억 원이 투입돼 2012~2014년 조성되며 자동차와 기계부품 업체 등이 입주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함

열을 비롯해 도내에서는 부안 제3지구, 김제 백구, 순창 풍산, 임실 제2지구 등 5개 농공단지에 총 1070여억 원이 투입돼 147만㎡의 농공단지가 새로 착공된다.

도내에는 총 43개 708만㎡의 농공단지가 조성됐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고은 시인 문학세계 맥잇기

‘만인의 물결 군산운동본부’ 내달 1일 발족

고은 시인의 문학적 가치와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단체가 고향인 군산에 설립된다.

27일 만인문화재단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 군산 궁전예식장 대연회장에서 ‘만인의 물결 군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운동본부는 고은 시와 대표작 ‘만인보’의 정신을 함께하고 흥보하는 민간주도의 단체다.

운동본부는 군산 출신으로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고은 시인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한편 생가복원과 문학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문화재단을 설립

해 1인 1만원 기금 마련 운동과 다양한 흥보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문학재단의 인정적인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10만명 회원의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은 시인의 작품 세계를 넓리 알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흥보클럽’도 개설하기로 했다.

1958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고은 시인은 1960년 첫 시집 ‘파안감상’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특히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인물 대서사인 ‘만인보’(총 30권 3800여권)를 집필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7년만에 완공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인 부안군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완공돼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대 35만여 ㎡ 부지에 1050억 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지난 2004년에 착공돼 7년 만에 완공됐으며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3대 분야의 성능 평가·연구를 하는 실증연구단지가 조성됐다.

또 4D 홍보관 등을 갖춘 테마 체험 단지와 관련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도 마련됐다.

도는 이 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을

해 하반기부터 6000명의 고용 효과와 함께 연간 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지난 2003년 부안군 위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등에 대한 정부 보상 차원에서 추진됐다.

김완주 도지사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녹색성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자 전북도가 지향하는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친환경 농법 재배 감자 캐불까

순창군 구림면 ‘물통골 정보화마을’을 찾은 가족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감자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익산 블루베리 남원 허브

맛과 향 ‘웰빙축제로의 초대’

도시 소비자들의 웰빙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블루베리’와 ‘허브’(herb)를 소재로 한 축제가 도내에서 잇따라 열린다.

◇익산 블루베리 축제= 익산시 송천 장수마을은 다음달 1~3일 ‘제3회 블루베리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송천장수마을 주변 경관과 지역특산물인 블루베리를 활용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블루베리 농장경작과 블루베리 이용 가공품 만들기, 블루베리 떡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수영장 물고기 잡기와 금속

닭잡기, 천연염색 체험 등의 농촌체험과 산악마라톤 대회 등 이색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에는 송립사 텁풀스테이가 가능해 다도, 소리, 108배, 쌍선, 밭우공암, 뮤언수행 등을 통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남원 허브축제= 남원 허브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오지탁)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운봉을 융산리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제4회 남원 허브축제’를 개최한다.

그동안 허브축제는 봄축제로 ‘지리산 바래봉 풀죽제’와 병행해 열렸으나 올해는 축제 일정을 가을로 옮겨

지리산 자생식물(토종허브) 중심의 축제를 개최한다.

‘지리산 허브! 자연의 속삭임’이라 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허브 향이 가득한 허브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참여형 관광축제로 펼쳐진다.

허브축제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고부가치 창출을 위한 허브 산업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29㏊의 허브 재배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지난 2005년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백선기자 ryu0418@

2011년도 반부채 종합대책 추진 상황 점검 ▲공무원의 선거증집 의무 준수여부 등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이행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하계휴가 전후와 추석명절 전후, 시장 재선거 전후 단계 별로 합동감찰반(감사실+총무과)을 편성해 공직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활동은 ▲

김제보건소 일본뇌염·말라리아 감염 예방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칠)는 최근 일본뇌염과 피서열을 맞아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시 보건소는 최근 방역장비 사용법과 종사자 안전교육, 효율적인 소독방법, 방역기기 점검 등을 확인하는 밭대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시 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방역 비상근무 체제로 전

순으로 진행됐다.

해원제는 한국전쟁 당시 해운선에서 고온이 된 영원들의 명복을 빌고 반백년 갈등과 반복을 해원의 화합으로 승화시켜 남북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북통일 기원 순창 ‘회문산 해원제’ 열려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아 ‘제11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5일 순창군 구립면 회문산 비복공원에서 열렸다.

회문산 해원제 제전위원회(위원장 김경섭)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분양과 현화, 주념사 및 추도사, 현시낭독

부안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번호시화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김태호전무이사 010-384-3886

숙박시설/상가

김승호이사 010-303-0114

공장/토지

김규석이사 010-664-6888

임대주택

김기현이사 010-317-1630

오피스텔

김희경이사 010-234-3734

주택/개발

김정호이사 010-317-1630

임대상가

김정호이사 010-317-1630

기타

김정호이사 010-317-1630

기타

김정호이사 010-317-1630

기타

김정호이사 010-317-1630

기타

<p